

## 부산 미 군사우체국 개소 ... 관세청, 남부권 위해물품 차단 강화

- 관세청 통관국장, 개소식 참석 및 미 군사우편물 세관검사 현장 점검

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30일(목) 부산 범일동 소재 미군 제55보급창 기지 내 미 군사우체국 개소식에 참석하고,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체계를 점검하였다.

부산 미 군사우체국은 남부권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사우편물 처리를 위해 새롭게 설치되었다. 그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 군사우편물은 전량 인천공항 미 군사우체국에서 처리해 왔으나, 앞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우편물은 부산 미 군사우체국이 처리하게 된다.

부산 미 군사우체국의 엑스선(X-ray) 검색기, 컨베이어벨트 등 우체국 시설은 미군 측이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구축하였으며, 이곳에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업무는 부산세관이 담당한다.

관세청은 미군 측과 세관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 구축, 보세운송 등 업무 처리 체계 전반에 대해 수 차례 심도 있는 협의와 현장 점검을 진행하여,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.

이 국장은 부산 미 군사우체국 검사 라인과 엑스선(X-ray)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, 현장 직원들에게 미 군사우편물을 통한 마약류·총기류 등 위해물품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.

아울러 “부산 미 군사우체국 개소는 남부권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이를 토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	책임자	과 장	노지선 (042-481-7840)
		담당자	사무관	민경욱 (042-481-7832)